

지역 신도회 신행 '기지개'

마곡사 '불자의 날' 제정 행사 다채 범어사 97개 말사 신도조직 재건 군산불교련 경로봉사·도서관 마련

지역 신도회들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고 있다. 마곡사신도회(회장 윤석관)가 마곡사(주지 진허스님)와 함께 '불자의 날'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신도회 강화에 선언한 것을 비롯, 부산·대구·수원·군산지역 신도회들이 활발한 신행을 다짐하고 있어 지역신도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신도회는 5일(매년 3월 첫째 일요일)을 '제1'불자의 날'로 제정하고 거사팀, 청년회, 중·고등부, 어린이 법회를 계층별로 재정립해 내실있는 신도조직으로 거듭나기로 했다.

이날 총회와 '불자의 날' 축하공연을 펼친 마곡사신도회는 당장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찰 재정공개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찰 행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 명실상부한 '4부대중'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방침아래 수련회와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고 등산로주변에 나무 심기, 관광객 안내 등 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2월21일 부산불교실업인회 최용환 신임회장이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2월28일 부산불교신도회 강선태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1천5백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가져 성황을 이

웠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조직정비와 때를 같이 해 14교구본사 범어사신도회도 박수관 회장을 선임하고 조직정비에 나섰다.

부산불교신도회는 환경·봉사관련 시민대상 제정과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복지·장학사업을, 범어사신도회는 97개 말사 신도회 조직 재건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는 등 각자 개성을 살린 신도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도 활발하다. 대구교도회 운불련 생명나눔실천회 대한중석석불회 등 12개 재가신행단체가 모여 결성된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는 2월27일 영남대학교에서 제2대 박운식 회장 취임법회를 열고, 실질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신행단체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원에서는 경기불교회관 거사회인 '마하연'(회장 유원근)이 1일



◇부산불교신도회는 2월28일 롯데호텔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되었으며, 수원포교당거사회(회장 진철희)는 2월29일 '거사회 발전 토론회'를 열고 친목활동과 교리공부 차원을 넘어 사회봉사·환경운동 등 대승보살사상의 실천 주체가 되기로 다짐했다.

불교신도연합회와 불교청년연합회가 이끄는 군산지역 신행활동도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회원 확장에 나서는 한편 군산역안 경로식당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군산불교회관

중 단 소식

조계종
수덕사 신도간부 연수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법장)는 25일부터 26일까지 수덕사에서 신도간부연수교육을 갖는다. 본·말사 신도회 간부 100여명이 참석할 이번 연수회에 예산 수양교육, 찬불가교실, 포교활동사례발표, 기초교리, 주지스님 특강 등을 실시한다.

천태종
명락사 창건 25돌 법회
서울 명락사(주지 도원)는 창건 25주년 기념법회를 19일 오후 2시30분 명락사 4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02)889-7272

진각종
영광심인당 밀교대법회
광주 영광심인당(주교 지정)은 24일 오후 2시부터 심인당 법당에서 밀교리 대법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총금강회와 대전지부 금강회 영광 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교리대법회에서는 불교방송에서 밀교강좌를 맡고있는 해정대장사가 법문한다. (062) 263-5272

원정각 대종사 6주기 추모제
원정각 대종사 6주기 추모제

개신교 부대장 군법당 신축봉사 지원 군부대서 꽃핀 종교화합

개신교인 부대장이 군법당 신축봉사를 지원해 종교화합의 신선한 사례가 되고 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최인수 사단장(소장)은 사단 군법당인 호국관 예배사(주지법사 한영규)가 좁은 창고(20평)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던중, 지난해 7월 광주불교사망연합회(회장 천운) 등이 군법당 신축봉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소유의 영의지역에 토지사용을 허가해 주는 등 불사를 적극 지원해 신축 법당이 4월 20일 낙성식을 앞두고 되었다.

한영규 법사는 "특별한 개신교 신도인 사단장님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법당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단장님은 참된 종교인이란 종교화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망연합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건축주 김재영 대영건설 사장 등의 도움으로 80평의 법당과 40평의 요사채가 완공된 호국관용사는 현재 법당이 불상, 불단 등 내부장엄물과 건립불사금 등 총 공사비 2억5천여만원중 1억여원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016)356-5829 김재경 기자

청암스님 10년간 모은 칠순 비용 천만원 장학금 쾌척

낙산사도 1천만원 기탁 충북 음성군의 조그마한 절 노스님이 칠순 잔치 비용으로 10년간 마련한 1000만원의 거금을 장학금으로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불사 주지 청암스님은 2월28일 음성군청을 방문, 음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생각면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큰스님으로 존경받고 있는 청암스님은 청주 교도소와 천안교도소 불교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장기수용을 위한 생일잔치를 매달 베풀어 주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에 쌀 세 가마니로 인절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종교를 초

월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13공수여단 효부부대를 방문, 법당 건축에 필요한 대리석(2300만원 상당)을 기증하고 석탑 조성비로 800만원을 기탁하기도 한 청암스님은 37사단 4대대에도 염포 등 방송시설을 기증하고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암스님은 "불우한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주지 지홍)는 2월24일 양양고와 양양여고를 방문해 불자학생 4명에게 2만1,400원씩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또 서울대 3학년 재학생인 김한민(24)군 등 7명에게는 온라인 통장을 통해 100~200만원의 장학금을 송금하는 등 이날 총 11명에게 984만 5,000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낙산사는 지난 90년 이후 매년 1회씩 불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원불교청년회 4돌 '티벳문화 한마당' 열어

대원불교청년회(회장 오세희)는 2월27일 부산 공덕원에서 창립 4주년을 기념해 티벳문화 한마당 행사(사진)를 열었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 티벳의 초콜릿 스님을 비롯 2백 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1부 법요식에 이어 초콜릿 스님의 특강이 열려 호응을 얻었다.

'티벳의 정신과 문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초콜릿스님은 "탐진치를 버리고 순수한 인식으로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벳 사진전, 티벳불구 전시, 티벳 다류물 상영, 티벳음악 등을



선비는 이색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96년 창립된 대원불교청년회는 매주 금요일 법회를 열고 중창단을 구성, 각종 불교행사에서 음성공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홈페이지(www.aceline.co.kr/daewon)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에도 주력하고 있다. (051)625-225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안동 제비원 미륵불 주변 관광명소 개발

50억 들어 주차장·상가건설
고려초에 조성된 경북 안동 0천동 석불상(일명 제비원 미륵불 보물 제115호)과 인접한 연미사 주변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된다.

안동시는 2월25일 조계종과 협의해 50여억원을 들여 이천동 석불상과 연미사, 3층석탑 주변을 정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이천동 국도 5호선(안동에서 영주쪽으로 6km지점) 오른쪽에 우측선 높이 12.38m, 머리둘레 2.43m의 이 초대형 석불은 이미에 양각으로 백호가 새겨져 있다. 또 석불상 바로 뒤편에는 석불상 조각

사천 다솔사 대양루 복원 극락전·응진전 등 새단장

유형문화재 제83호인 경남 사천시 다솔사 대양루가 원형대로 복원되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같이 대양루가 복원됨에 따라 다솔사의 문화재자료 제 148호인 극락전과 제149호인 응진전 석가모니진신사리탑 등과 더불어 사천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조 34년(1758년)에 중건된 대양루는 목조기와 2층 맞배지붕에 정면 5문, 측면 4문 1백8명의 사할내 누각으로 지난 74년12월 16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그동안 관리 부실로 서까래 기와 기둥이 부식되면서 건물 전체가 전면에서 우측으로 5도 이상 기울어져 붕괴 가능성이 높았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

연흥사 불교대학 개설
부천 연흥사(주지 법경)는 불교교리반, 한문반, 한글반 등 3개 반 6개월 과정의 연흥불교대학을 개설했다. 불교교리반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및 사찰예절, 경전이해 등을, 한문반에서는 천자문,고사예문, 사자소학, 명심보감을 한글번역 유이들을 대상으로 한글의 읽기와 쓰기를 가르친다. (032)348-6602

신협 올예산 10억6천만원

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인옥)은 2월 26일 봉원사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예산 10억5천8백51만9천원을 확정했다. 또 당기순이익은 9천6백62만 8천원을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예산 증진 사업으로 △금융기관간 온라인을 연결하는 금융결제원에 가입 △여, 수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랄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워터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범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 용도
사찰연등용·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교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수거할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인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등 배선
· 일일이 파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시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만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 582-6235~6
080-5826-236
A/S : (032) 583-4023
FAX : (032) 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주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이제 연등에 변질한 품질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경으로 풀밭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입'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면화된 유공 구조적 가격을 배격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조별용(8cm) ◆ 조별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